

# 알코올 중독의 터미널

(알코올성 치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20년 이상 과음하는 동안 거쳐야만 하는 관문은 많고 많다. 대개의 주정 의존증 환자들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여러 가지 술병(病)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앓으며 지나가기도 하고 그 관문에 걸려 아웃(사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취객들을 도중하차시키는 ‘술과 관련된 질병’은 그 외에도 무척이나 많다. 알코올성 간 경화증 및 복수(腹水)에서부터 급성 췌장염, 위장 출혈, 위가 녹아서 뚫리는 천공(穿孔), 토하다 숨이 막혀 죽는 질식사, 흡인성 폐염, 심장마비, 취중에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생기는 골절, 뇌 혈종, 그리고 동상, 화상에 이르기까지 이루 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이다.

간혹 만성 중독자가 팔다리가 저리고 “전기 오는 것 같다”며 혈액 순환제를 열심히 먹는 경우를 보는데 사실은 혈액순환과는 무관하며, 대부분 비타민 결핍과 관련된 말초 신경염을 앓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아주 운이 나쁜 환자는 심하게 술을 마신 후 작은골의 일부가 상하는 알코올성 소뇌 변성이라는 희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몸의 균형을 못 잡고 마치 뇌성마비 환자처럼 몸을 비비 틀고 꼬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 중 큰골이 알코올에 ‘녹아 버려서’ 오는 질병이 있으니, ‘알코올 중독자의 터미널’이라 할 수 있는 알코올성 치매(癡呆)가 바로 그것이다.

57세 된 J씨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으로 과거에 급성 중독과 금단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였다.

지금 그는 병원 안에서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왜냐 하면 그는 단순한 기억력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애정,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고위(高位)능력이 모조리 사라져 버린 알코올성 치매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최종적으로 알코올 금단성 진전 섬망을 앓은 것은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지만, 그 후로는 병이 진행해서 이내 머릿속이 텅 빈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에게는 집안에서의 하루 하루 생활이 너무나도 벅찼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짜증만 나고, 더군다나 최근의 일들은 전혀 기억할 수가 없으니 일상적

인 생활이 되어질 리 만무하였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때 잘 자고, 먹을 때 잘 먹는’ 사람이다. 단 하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아침 회진 때 대답해야만 하는 아침 식사의 반찬 이름을 기억해 내는 일이다.

하루의 일과가 일정하게 편성되고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정신 병동에서 그는 일견 로봇과도 같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별 말이 없고 요구 사항도 없으며, 시키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남 따라서 잘 해내니까.

그러나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곧바로 문제를 일으켜 버린다. 획일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융통성을 요하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는 심각한 판단 장애를 보이고 그 때문에 금세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결국 몇 번의 입 퇴원을 반복하였지만 ‘본인에게도 편하고 가족들도 잇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입원해 있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린 것이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주고 입원비를 마련해 왔던 그의 부인은 이제는 지쳐 버렸다.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라도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녀를 아무도 비난하지 못한다.

술을 매우 즐기고 술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장차 자신과 가족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술을 매우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45세 이전까지 어떤 강단(剛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 나 이후에 마시는 술은 그 이전에 마셨던 술 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당신의 머리를 후려갈 것 이 분명하기 때문이다.